

- “지구온난화는 조만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. 우리 자녀들도 역시 같은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.”

미국 뉴욕 컬럼비아대학에서 개최된 환경회의에 백악관 대표로 참석한 데이비드 샌덜로, 올해 세계기후정상회담은 기대할만한 결과가 없을 것이라며.

- “전체 농업관계자는 다음해 농사에서 물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물잡이 전투에 떨쳐나서야 한다… 흐르는 물은 모조리 잡아라.”

평양 중앙방송, 엘니뇨현상 등으로 파급될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.

- “거기엔 정부도 없나?”

싱가포르의 한 국회의원,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 화전(火田)으로 아기된 산불연기가 싱가포르에 퍼져 연무현상을 일으키자 인도네시아 정부에 화전금지법안을 촉구하며.

- “이것은 인디오들에게 있어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는 일대사건이다. 그들은 악령들을 물리치기 위해 집안의 벽을 두드리고 있다.”

'89년부터 아마존의 인디오들과 생활해 온 이탈리아 카톨릭 사제 디놀리, 최근 계속되고 있는 아마존의 산림화재에 대해.

- “멸종위기가 화제에 오를 때 흔히들 공룡을 떠올리지만 지금은 우리의 아들과 손자들에 대해 고민할 때”

앨런 피터 뉴욕 자연사박물관장, 4백여명의 과학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동식물의 멸종이 오존층 파괴나 지구온난화·

환경오염보다 심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.

■ “이거 내가 어느 별에 사는 거야.”

미국 뉴욕의 한 시민, 공원나무에 자전거를 묶어둔 죄로 벌금 1천달러를 내거나, 아니면 나무를 포옹하고 사과하라는 지시를 받고.

■ “IMF 여파로 전국적으로 자동차 운행이 줄면서 공기가 깨끗해지고 공장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강물이 맑아져, 연간사회적비용 1조2천억원의 대체효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. 이제부터 숲가꾸기, 하천정비, 재활용업종 등 노동집약적 사업에 실업자를 대거 투입, 환경문제와 실업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.”

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희성 박사

■ “엘리뇨현상이 일어나는 동태평양의 경우 수온상승이 해수표층으로 국한돼 있는 반면 동해는 깊은 곳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 큰 기상이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.”

서울대 해양학과 김구 교수, 엘리뇨현상으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폭설, 폭우, 태풍 등 올해 한반도 농업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.

■ “이번 지진은 울들어 세계 최대 규모로 태평양 전체에 해일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.”

호주지질관측기구의 지진학자 케빈 매규, 남극 주변에 리히터 8을 기록한 지진을 두고. 